

Peace BAR Festival

PBF 2018, 새 시대 맞은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행사

서울캠퍼스 뉴스팀 khunews@khu.ac.kr

#. 매년 가을 우리학교엔 캠퍼스가 평화로 물드는 특별한 기간이 찾아온다.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Peace BAR Festival(PBF) 2018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평화의 날은 전쟁 및 폭력행위의 종단을 말하며 경희대 설립자인故 조영식 박사가 지난 1981년 UN에 제안해 제정됐다. 37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평화에 평화가 더해졌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한반도의 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새롭게 전개된 남북 관계는 정치변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 때문에 올해를 관통하는 주제 역시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 그 가치와 철학’으로, 우리가 당면한 시국을 반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지구적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도 논의됐다. 학생, 교수와 세계 석학이 한반도의 새로운 지평과 인류의 평화적인 미래까지 탐구한 PBF 2018, 그 중심엔 경희가 있었다. 평화와 경희,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서울캠퍼스 뉴스팀 =강래완, 권진현, 배지현, 오진영, 이다빈, 이서연, 이은화, 조민기, 최수연, 홍연지, 안나연 기자)

1. 경희 Peace Road 탐방

우리학교 건축물에 숨겨진 평화적 이념을 따라 걷는 탐방, 올해는 홍승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수강하는 중국인 유학생 30명도 참여해 경희대의 평화 이념을 살폈다. 탐방은 교시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담은 교시탐, 본관,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을 순서대로 소개하며 이뤄졌다. 탐방을 진행한 경희기록관 남기원 연구원은 “특히나 올해는 유학생과 함께 해 역사 속 평화의미를 찾는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2. 특별강연

〈가제타 비보르차〉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갖는 의미를 특별강연을 통해 전달했다. 미치니크 편집장은 급격한 경제성장, 민주주의 사회로의 개혁 추구 등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한반도의 봄”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세 속 고도의 시민사회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화합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3. 원탁회의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세계 석학과 함께 의논하는 원탁회의가 ‘전환 문명의 시대’라는 주제에 맞춰 위기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뒀다. 한국,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과 더불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 및 세계적 평화 문제도 논의됐다.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의 중요성에 입을 모으며, ‘정보의 홍수’라 일컫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에는 특히나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가 요구됨을 역설했다.



4. 토론대회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참가한 토론대회.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16강과 준결승은 ‘통일은 청년세대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를, 4강과 결승은 ‘통일의 방식: 동질성 회복 혹은 이질성 수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질성 수용 관점에서 통일의 방식을 토론하며 우수한 ‘통하조’ 측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제기될 수 있어 좋았다”는 심경을 전했다.



Since 1982, Peace BAR Festival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김수혁 기자 sherh@khu.ac.kr

제 37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8 Peace 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Festival(PBF)’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열렸다. PBF의 일환으로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한주 동안 ‘세계 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올해 PBF의 주제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였다.

우리학교가 매년 PBF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UN 세계평화의 날의 제정에 그 배경이 있다. UN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다. 이로 인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는 UN에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의 제안은 IAUP의 회장이었던故 조영식 박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제36차 UN 총회에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 UN 총회가 156개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이 제안을 채택함으로써 UN 세계평화의 날이 탄생했다. 그 후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9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정했으나 현재는 9월 21일로 고정됐다.

우리학교는 세계 평화의 날이 제정된 이듬해인 1982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PBF를 개최했다. 그간 PBF는 국내외 지식인을 초청하여 세계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는 PBF를 맞아 ‘세계 평화주간’을 선포하고 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되새기고 고민해볼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9월 18일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세계평화의 날 기념

식이, 20일에는 서울평화포럼이 치러졌다. PBF 기념사를 통해 조인원 총장은 “지금은 희망과 함께 역사를 바꾸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를 설명했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와 19일에 열린 기념식 특별강연, 원탁회의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평화주간 선포식, 평화극장, 경희 Peace Road 탐방, 세계평화의 날 기념특강, 평화토론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김지은(철학과 2015) 씨는 “우리학교가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BF와 같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면서 “오직 자국의 이권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지구적, 인류애적 시각을 가진 경희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준 학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관계가, 전세계의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이산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이념 행사의 주요 화두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평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기념하고 고민하는 세계 평화의 날과 PBF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참여는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학생들의 제안과 기획으로 평화토론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오늘날과 같이 물질만능주의와 냉소적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 풍토에서 세계평화와 같은 이상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PBF가 학생들로 하여금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고의 넓이와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